

[창세기강해 47] 언약의 자손 이삭을 약속하시다

[본문] 창 17:17~27 / 하용조 목사 / 페이지수: 7

아브람이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그의 믿음은 좌절과 절망, 체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일깨우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나의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을 일깨우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실로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4년이 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너는 한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믿음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 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사람은 누구든지 속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표현하는 말은 장소와 대상에 따라서 과장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속마음과 겉으로 표현되는 말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을 경험하다보면 자기 속에 없는 것을 말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속으로 말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백 살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으며 내 부인 사라도 나이가 구십 세인데,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생산을 한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도 끊임없이 네 부인 사라에게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야깁니다. 누가 봐도 웃을 이야깁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 20여 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왔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겉으로는 진실로 믿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야’라고 할 것처럼 보였지

만 17절을 보면 24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그의 고백은 ‘믿지 못 하겠습니다’라는 말이었습
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목사
나 장로가 되었어도 여러분의 신앙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진짜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
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믿음이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 17절의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이나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인
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얻어진 확신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성숙해지지만 성숙해진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많고 인생
을 노련하게 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 지혜나 노련한 경험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인간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대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전혀 질이 다르고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간적인 성숙함과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을 원하셨던 것이 아
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믿음이 다 무너지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기간이 24년이었습니
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신뢰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스타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
씀하십니다.

인간에 의해 조작된 믿음, 인간에 의해 경험되고 훈련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부터
가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온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믿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 내가 생
각할 수 있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는 인간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인간적인 믿음을 25년간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
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 자신의 판단과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 그래서 속
으로 웃은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신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한 모습일
수는 있지만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험이나 지식을 통해 얻어진 확신을 믿음처럼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갤럽 등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조사한 통계를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통계나 지식이나 과학에 근
거한 믿음은 결국 좌절과 절망과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믿음일수록 그럴 듯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합리적인 믿음일수록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날이 갈수록 미궁 속에 빠지고 맙니다.

아브라함도 미궁 속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도 신뢰하지 않았고 약속보다는 환경을, 기적보다는 신체적인 조건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사는 법도 알고 제법 지혜도 많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 나이가 1백 살입니다. 그리고 제 부인도 아흔 살입니다. 13년 동안이나 이스마엘을 데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 남의 씨입니까? 이스마엘도 내가 낳은 씨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네가 정녕 아들을 낳으리라’

19절을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럴 듯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인간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나는 아기를 줄 것이며 내가 약속한 자녀가 네 아내에게서 분명히 날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이야기를 끝까지 주장하면 확신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나 틀린 이야기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을 고집이라고 합니다. 틀린 것이 있다면 고집 피우지 말고 바꾸시고 고치십시오. 그러나 옳은 것이라면 끝까지 가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꾸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은 환경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마엘이 잘못되어서 이삭을 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택하셨을까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여자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친히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임신도 하지 않았는데 이름까지 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미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속이시며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호하게 말씀하실 때는 그 때가 아직 멀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 때가 아주 가깝다는 뜻입니다. 네가 낳는 아이는 아들일 것이며 이름은 이삭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0~21절을 읽으십시오.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종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열두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마음이 넓으시고 배려 깊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배려가 깊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이스마엘도 버리지 않고 이삭처럼 똑같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에게도 주신 큰 축복

20절의 축복은 이삭에게 준 축복과 별다른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이스마엘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동일한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받은 축복 때문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먼 훗날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삭을 낳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만 구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2천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1만 명의 사역자를 보내고 당신을 통해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온누리교회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에게 주신 축복을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이 주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십니다.

선택이란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메시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과 의미가 우리교회에게 전해졌고, 특별히 온누리교회는 미전도 종족과 이스라엘선교를 위하여 부름 받은 사명을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다른 편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햇볕과 공기를 주십니다. 금흠을 베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편만 사랑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편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연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야 했기 때문에 이삭을 태어나게 하셔야 했습니다. 21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싸인을 주십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날짜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내년 이맘 때’ 출산할 것임으로 지금부터 약 2개월 후에 임신할 것이며 열 달 후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주시고 떠나셨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고 24년을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싸운 것은 그의 인간적인 믿음이 다 소진하고 없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위기에 처하는 아브람을 구해주시고 격려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야단치거나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기근을 만나 도망갔을 때에도, 언약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했을 때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다시 격려하시고 다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지만 자주 곤두박질하는 까닭은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거나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끝까지 옛사람을 물고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자존심 때문에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에게 밥을 주는데 더러운 밥그릇에 줄 수 있습니까? 밥을 깨끗한 밥그릇에 담아 주어야 하듯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옛사람을 모두 포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인간적인 믿음을 붙들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에도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벌써 1백 살인데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는가? 내 아내가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발전되어 하나님의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믿음을 포기하고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전부를 얻든지 혹은 전부를 잃든지

23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믿음이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신대로’입니다. ‘내 경험대로’가 아니며 ‘여론’이나 ‘조사기관에서 말한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순종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23절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절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간적인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포기하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자기 식으로 믿고 행동하고 자기 식으로 주장하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 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나 이스마엘이나 돈으로 산 자나 모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몇 가지 시험해 보고 비교해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전부를 얻든지 혹은 전부를 잃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단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갖기 직전에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한 번의 결단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23절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22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계산했지만 이제는 모든 인간적인 믿음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지금까지 있었던 인간적인 모든 믿음과 결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믿음, 거룩한 믿음, 성령의 믿음, 보혈의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이것저것 따집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지배할 때는 이리 뒤흔들 저리 뒤흔들거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사람들은 단순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믿음 포기한 아브라함

24, 25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구십 구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십 삼세 이었더라

흥미로운 사실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믿음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약속의 자녀가 믿음에 기초하여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먼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믿음이 종식되어야 축복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26, 27절을 보십시오.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성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이제 아브라함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인간적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본인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믿음, 거룩한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에 기초하여 믿음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에 기초하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한 믿음, 인간적인 생각에 기초한 믿음으로 이곳까지 왔다면 오늘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태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끌어 왔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출처 : 온누리신문